

전주시민기록관, 세대공감 기록체험

24일~8월 14일 전 세대 함께하는 기록 가치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는 오는 24일부터 전주시민기록관에서 어린이부터 일반 시민까지 전 세대가 함께 기록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세대공감 기록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기록관을 찾는 방문객에게 기록의 소중함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민기록관은 여름방학 집중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단체 관람 및 체험을 집중 진행할 예정이다.

체험 프로그램은 총 4단계, 60분 맞춤형 코스로 운영된다.

1단계 '시크릿 수장고 탐방'에서는 평소 공개되지 않는 수장고 내부를 견학하며, 생활사 기록물의 명칭과 쓰임을 익히고 기록물 보존을 위한 과학적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한 2단계 '백 투 더 전주'에서는 스크린을 통해 전주의 옛 모습을 AI 기술로 복원한 영상

을 관람하는 디지털 역사 여행이 펼쳐지며, 3단계 '네트로 테크 체험 및 게임'에서는 타자기와 전화기, LP 등 옛 기록물을 직접 만져보고 익히며 기록물 빙고 게임을 통해 흥미를 더할 수 있다.

마지막 4단계 '기억+기록 공방'은 △레트로 모던 콘셉트의 AI 즉석카메라로 탐험 인증사진을 남기기 △나만의 카펫 기념품 만들기 △오늘의 소회를 적어 '기억기부함'에 보관하는 엽서 쓰기 활동으로 꾸며진다.

또한, 세대공감 기록체험 프로그램은 전주지역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휴가철 전주를 찾는 가족 단위 여행객 등 지역의 기록에 관심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는 사전 예약을 통해 운영되며, 내실 있는 체험 진행과 안전 확보를 위해 10명 이내의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된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민기록관(063-281-29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번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기록관



전주시민기록관 세대공감 기록체험 프로그램 포스터

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기록문화 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정훈 전주시 총무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기록의 가치를 몸소 느끼고, 세대를 이어주는 소중한 기억을 공유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가 함께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기록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투어버스’ 원스톱 서비스 운영

공식 홈페이지 · 모바일 앱 구축... 스마트 예약 시스템 도입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표 광역 관광상품인 '전북 투어버스' 전용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정식 오픈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예약부터 결제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용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구축으로 관광객은 운행 노선과 일정, 이용요금 등을 확인하고 예약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여행 계획과 이용 절차가 한층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구축한 플랫폼은 이용자가 운행 코스와 관광상품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역과 테마별로 원하는 상품을 검색하고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여행 일정도 보다 편리하게 계획할 수 있다.

도는 예약 플랫폼 구축과 함께 관광상품도 새롭게 개편했다. 기존 관광지 중심의 운행에서 벗어나 힐링 · 치유, 역사 · 문화,

미식 등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테마형 코스를 확대하고, 지역축제와 특산물을 연계한 관광상품도 함께 운영한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창 고인돌 유적 탐방 코스를 새롭게 추가하는 등 현재 도내 14개 시·군을 연결하는 30여 개 광역 관광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KTX역과 시외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거점과 연계해 자가용 없이도 전북 곳곳을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광역 관광체계를 구축했으며, 전문 투어매니저 배치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관광객 만족도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전북 투어버스의 운행 노선과 일정, 이용요금 등 자세한 사항은 전북 투어버스 공식 홈페이지(jitourbus.kr)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전북 투어버스' 앱을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우일극장’에 담긴 추억 찾아요”

군산문화관광재단, '우일 씨네마' 추억 공모 31일까지 연장

군산시민들의 오랜 낭만과 추억이 깃든 옛 우일극장(군산극장)의 기억이 시민들의 이야기로 다시 살아난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오는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우일 씨네마' 행사를 앞두고, 옛 우일극장과 개복동 거리에 얹힌 시민들의 추억을 수집하는 '추억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7월 17일까지였던 공모 기간은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7월 31일까지 연장됐다.

1960~70년대 극장 전성기 시절 우일극장은 군산 근현대 문화의 중심이자 시민들의 문화향유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오랜 시간 시민들의 삶과 함께하며 수많은 추억을 간직한 상징적인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다.

재단은 이번 공모를 통해 현재 군산시민예술촌으로 새롭게 활용되고 있는 우일극장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할 계획이다. 특히 우일극장의 전신인 '군산극장' 시절부터 이어져 온 시민들의 추억과 개복동 일대의 이야기기를 폭넓게 수집해 세대 간 공감과 지역 문화 자산의 가치를 함께 나눌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옛 우일극장과 개복동의 역사를 담고 있는 기록물 전반이다. 당시의 사진과 영화 티켓, 포스터 등 시각자료는 물론 우일극장과 관련된 개인의 추억과 사연 등 개복동과 우



일극장의 기억을 담은 자료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집된 자료와 사연은 오는 8월 개최되는 '우일 씨네마' 행사에서 우일극장의 추억을 재현하는 콘텐츠로 활용돼 행사에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자우편(jhee0107@gunsanfc.or.kr) 또는 군산문화관광재단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도내 40세 이상 예술인 종합건강검진 지원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지역 예술인들의 건강권 보호와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도내 40세 이상 예술인을 대상으로 '2026 예술인의료비(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재단 예술인복지증진센터의 복지사업이다.

올해 모집 인원은 총 100명이며, 오는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이메일(jear2024@harmail.net)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40세 이상(198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예술인이다.

다만 2025년도 사업 수혜자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상근예술인, 지자체 공무원 · 대학 교수 · 초·중고 교직원, 2026년 1인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 예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단은 올해 예술인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 연령 기준을 기존 4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낮추고, 소득 기준도 기존보다 완화했다. 또 행정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해 현장 예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훈 기자



부안청자박물관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1일까지 6일간 국내 및 국외에서 활동하는 도예가를 대상으로 부안 상감청자 심화전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안청자박물관, 제3기 부안상감청자 심화전수 프로그램 운영

부안청자박물관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1일까지 6일간 국내 및 국외에서 활동하는 도예가를 대상으로 부안 상감청자 심화전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의 대표적인 공예품인 청자문화유산의 부안 상감청자 기법을 심화 전승하고 이를 통해 각종 도예가를 유치하고 전문가 클래스 활동을 바탕으로 부안이 세계 최초 상감청자의 발생지임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심화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진행되며 참가 도예작가들은 물레 성형, 상감기법 실습, 전통 도구 조각칼 제작법 등 전 과정에 걸쳐 부안 상감청자의 전통을 직접 배웠다.

이번 전수 과정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유자 이은규 사기장이 지도교수로 참여하고 부안관요 도예가 도정 김민식, 강의석, 송승호 이수자들이 함께 강사로 나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 기술을 전수했다.

또 참여 도예가를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주 테메클라에서 도예가로 활동하는 재미교포 에이미박(Amy Park)은 미국 현지인들에게 부안 청자를 전파하기 위해 직접 배우러 왔으며 중국 경덕진 도자대학 호결(Hu Jie) 교수 및 허난 성 쉬창대학교 왕정(WANG JING) 교수 등은 학생들 수업을 위해 황해를 건너 청자를 전수 받기 위해 참여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행동으로 전하는 사랑, 오늘도 지역사회와 함께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살피며, 환경을 가꾸는 일에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헌혈봉사

김치나눔

나라사랑 평화나눔

환경정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도마지파 전주교회

말씀광장
www.wordsquare.org